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Lock down 단계 발표가 내일(21일)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며 힘들어도 인내를 훈련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공동 성경읽기가 이번 주로 7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범위: 시편 93-113편입니다).
3. TEE 성경공부가 화요일(낮 반, 저녁반), 수요일(낮 반), 주일반 개설됩니다. 많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항존 직분자들은 자원). 화요일 낮 반(기도)은 오는 화요일(22일)부터 개강합니다. 주일반은 27일 주일 오후부터 개강할 예정입니다.
4. Day Lights Saving(서머타임) 이 오는 27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토요일(26일) 취침 시에 시계를 한 시간 당겨 놓고 주무시기 바랍니다(예: 9시→10시).
5. 이정인 집사, 김선화 권사 장남 민우 군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26일)에 있습니다. Lock down 관련하여 양가 가족들만 참석합니다. 기도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는 www.youtube.com/calvaryorgnz 이나 카톡으로 전달된 주소를 클릭 하여 참여하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 주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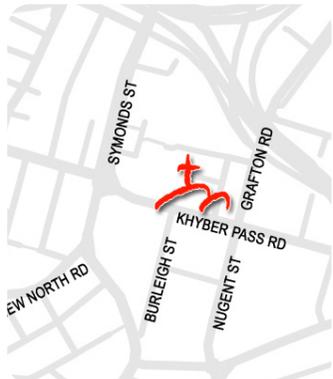
온라인 헌금 방법:

예금주: Calvary Church 은행구좌: ASB 12-3042-0352091-00

7. 뉴질랜드 시찰회가 오는 25일 (금) 오전 10시 30분에 기쁨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9월 교회사역일지

9월 20일 (주일)
그루터기 주일
9월 27일 (주일)
성찬주일,
권사 기도회
9월 30일 (수)
1,2 남선교회
헌신예배

9/10월 기도순서

9월 27일 (주일)
손조훈 집사
9월 30일 (수)
최희숙 집사
10월 4일 (주일)
현석호 장로
10월 7일 (수)
한누리 집사

9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이광희, 김순자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38호 2020.09.20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일예배 수 7:30 pm
금요기도 금 7:00 pm
유아부 주일 1:00 pm
아동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청 년 예 배

금 주 기 도
-
다음 주 일
-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시편 66:8-9,20	인도자
✧찬 송	----- 10장	다함께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 258장	다함께
대 표 기 도	-----	박병민 장로
성 경 봉 독	----- 창세기 13:1-9	인도자
설 교	----- 예배자도 갈등은 있다	이태한 목사
찬 송	----- 오늘나는	다함께
헌 금 기 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응 답 송	----- 310장 (1,4절)	다같이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온라인 입금으로 합니다.

수요일예배 (가정예배) 오후 7시 30분

기 도	정혜숙 권사
성 경 봉 독	야고보서 2:19-26
설 교	산 믿음 죽은 믿음 2
	이태한 목사
찬 송	540장
주 기 도	다같이

선교란

이번 주는 바누아투 장로교단에서 보내온 태풍 피해 후원 감사 편지입니다.

제목: 열대성 저기압 태풍인 해롤드의 영향을 받은 공동체에 대한 은혜롭고 관대한 도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바누아투 장로 교단은 한국 장로 교단 내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사역자님들이 열대성 저기압 태풍인 해롤드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들에게 관대하게 나눠주신 엄청난 도움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바누아투 장로 교단은 한국 장로 교단 소속으로 바누아투에 거주하고 계시는 선교사인 정성욱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랑하는 아내인 제마 사모님과 사랑스러운 두 자녀의 존재에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지역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으며 실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공동체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고 그들에게 한국 장로 교단의 도움을 직접 전해 주었습니다.

정 목사님이 직접 방문했던 특정 공동체들에 대한 보고서와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바누아투 장로 교단은 한국 장로 교단, 특히 갈보리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롭고 관대한 도움에 대하여 지극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바누아투 장로 교단 선교 담당관
로이 요세프 목사 드림

Subject: Gracious and generous help to the communities affected by the Tropical Cyclone Harold.

Greeting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The Presbyterian Church of Vanuatu appreciate so much the tremendous help that the various churches and ministries in those churches withi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had generously given to the TC Harold's affected communities.

The PCV acknowledged the presence of the PCK's resident missionary Rev. SungWook Jung and his beloved wife Gemma and their two lovely children who contributed so much locally and actual going out to meet and hand in person PCK's help to the needed communities.

Rev. Jung is sending to you the photos and reports of the specific communities he visited.

The Presbyterian Church of Vanuatu here conveys her high thanks and appreciation to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in particular the Calvary Church for the gracious and generous help for the glory of God.

Yours in Christ our Lord.

Pastor Roy B Yosef, Secretary o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of Vanuatu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2. 새로운 각오로 모이기에 힘써 영적을 회복을 다시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3. Lock down으로 경제적 어려움, 병으로 고통 중인 성도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나눔란

2020년 9월 13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창세기 12:10-20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갔지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땅에 기근이 심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12:10).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의 원인과 하나님이 주신 회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보다 현실을 더 고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12:7) 기근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는지 현실을 선택하는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 하시며 40일 금식 후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마 4:4). 우리가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알려 주셨습니다(요 16:34). 인생에 갑자기 닥치는 기근 앞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인생의 기근을 불러오는 화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은 답답하고 약속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2) 하나님 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인들이 자기 목숨을 빼앗을 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12:13). 이것은 자기의 아내를 더 큰 위험 속으로 빠뜨리며 사라를 통해 자식을 줄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마저 위험에 빠지게 한 행동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말씀 안에 살 때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시작되며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게 됩니다(잠 28:1).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벧전4:11)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빌 4:6-7).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만이 인생 기근의 유일한 해결책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바로잡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12:17). 잘못된 아브라함이 했는데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자기 아기를 훔치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으리라(사 49:12)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로 왕은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12:18-19).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로부터 책망받는 모습은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이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인생의 기근이 와도 약속의 땅을 함부로 떠나서는 안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도 하나님 보다 세상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기근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승리하는 갈보리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 창세기 13: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